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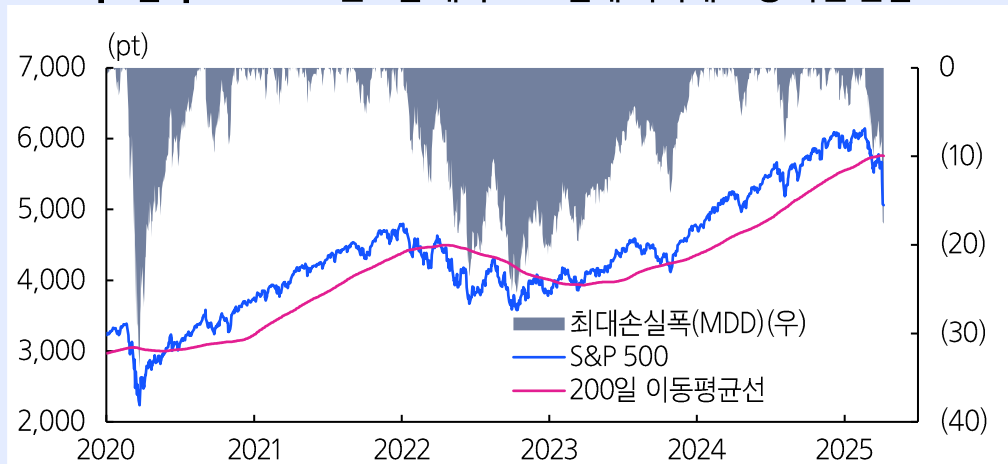
지금 **Hot한 종목**을 Kodex로 만나는 시간

삼성 Kodex ETFNow

01 | 이번주 HOT 종목 : 미국 배당주

현지시간 2일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관세(5일 시행, 10%) 및 상호관세(9일 시행, 차등화) 등 시장 예상보다 강한 관세 정책을 발표했다. 이에 뉴욕 증시는 관세 부과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일제히 급락했다. **S&P 500은 (-)17.4% 하락해 조정장(전고점 대비 10% 넘게 하락)으로 진입하고, 나스닥은 (-)22.7% 급락해 약세장에 진입했다(4/4, Bloomberg 기준)[그림 1].** 지난 2일 발표된 관세율이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둔 상한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, **중국의 보복관세 발표로 여진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.**

[그림 1] S&P 500: 전고점 대비 10% 넘게 하락해 조정 국면 진입



※ 자료 : Bloomberg, 삼성자산운용

미국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, 최근 급락은 미국 증시의 진입 매력을 높이는 유인이다. 다만, **관세 협상 과정에서 2차 무역 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 포착될 경우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[그림 2].** 한편, 이번 주 후반 실적시즌이 시작되는데, 빅테크 실적은 4월 말에나 확인 가능하다. 4월 말 빅테크 실적발표를 통해 **AI 인프라 투자 축소 논란이 해소되기까지 미국 증시는 기술적 반등에 그칠 공산이 크다.**

[그림 2] 2차 무역 전쟁 우려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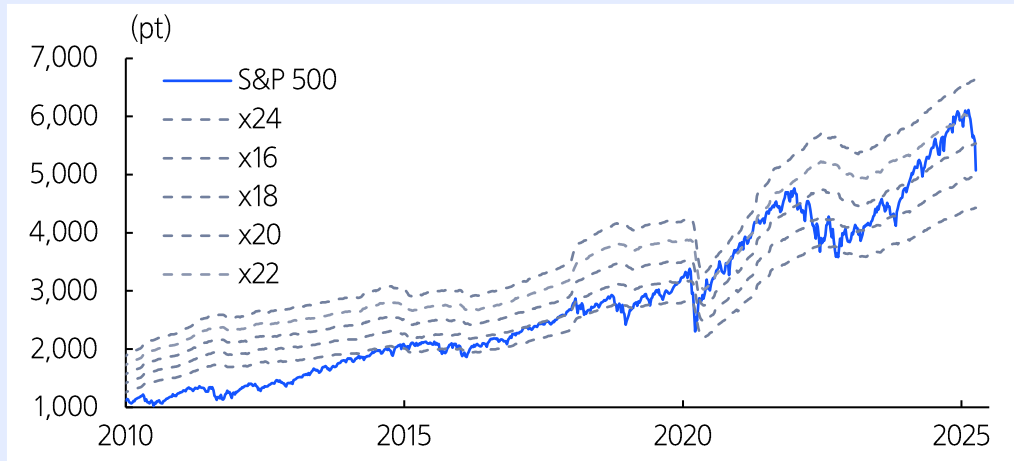


※ 자료 : Bloomberg, 삼성자산운용

02 | 왜 미국 배당주인가? 변동성 장세를 이겨낼 힘

최근 급락으로 S&P 500의 12개월 선행 PER은 관세 부과 전인 4월 1일 20.4배에서 4월 7일 18.3배로 급전직하였다. 2020년 이후 12개월 선행 PER이 평균 20.0배였던 점을 감안하면 **미국 증시에 대한 저가 매수를 타진하기 유리한 시점**이다[그림 3]. 선물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상반기 1회, 연말까지 약 4회를 반영하면서 연준 풋 발동 기대감도 상당하다. 다만, **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는 만큼, 미국 대표지수에 대해서는 분할매수가 유리**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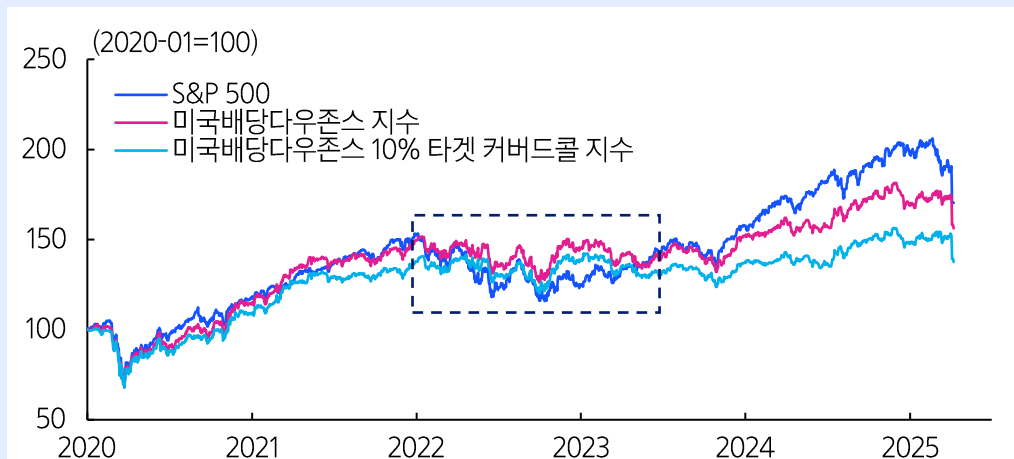
[그림 3] S&P 500 12개월 선행 PER 4/1 20.4배 → 4/7 18.3배로 급전직하



※ 자료 : Bloomberg, 삼성자산운용

배당주는 변동성 장세에서 **대표 지수 대비 견조한 흐름**을 보여왔다[그림 4]. 이번 변동성 장세에 배당주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다. 다만, 변동성 장세가 일단락되고 상승장으로 진입할 때 배당주는 대표 지수의 기대수익률을 하회하는 경향이 있어, **분배금을 지급하되 대표 지수를 최대한 따라갈 수 있는 ‘배당주+성장주’ 투자 전략이 장기 기대수익률 제고에 유리**하다.

[그림 4] 변동성 장세에서 방어력이 뛰어난 배당주



※ 주: 토탈리턴(TR) 기준. ※ 자료 : Bloomberg, 삼성자산운용

03 | '미국 배당주'에 투자하는 Kodex 대표 ETF는?



'25년 연초 이후 개인순매수

441640

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

'미국 배당성장주' + 'S&P500' 투자를 통해
월배당 + 자본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ETF

1,697억원

489250

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

미국 우량 배당성장주 100개 기업에 투자하며,
월배당을 통해 현금흐름을 제고할 수 있는 ETF

601억원

483290

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타겟커버드콜

'SCHD' 배당성장 종목에 투자하며, 커버드콜 전략을
통해 월배당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ETF

443억원

※ 자료: 2025년 4월 4일 기준, 삼성자산운용

04 |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(441640) 알아보기!



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(441640) 투자포인트



성과까지 고려한 배당성장주 선별 투자를 통해 월배당 + 자산성장 동시 타겟



국면별 탄력적인 커버드콜 전략 → 하락기에는 옵션 매도 비중 확대로 방어!

비중 있는 S&P500 투자를 통해 변동성 장세에서 안정성을 더하고,
향후 성장성까지 취하는 밸런스있는 배당성장 투자 포트폴리오
 삼성 Kodex ETF
홈페이지 바로가기


★
탐픽 선정
이유

전통적인 배당성장주와 함께, 성장주로 분류되는 Apple, Microsoft, Meta와 같은 배당성장주에도 투자하는 ETF. 국면별 탄력적인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하락장에서는 방어, 상승장에서는 S&P 500 투자를 통한 자본성장을 타겟할 수 있는 ETF → 현재 변동성 장세에서는 월배당을 통한 상대적 안정감과 향후 성장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ETF 투자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



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(441640) 보유 종목 TOP5

구분	종목명	기업설명	보유비중
1	Vanguard S&P500 ETF (VOO US Equity)	글로벌 운용사 Vanguard가 운용하는 S&P500 투자 미국상장 ETF	23.0%
2	VISA (V US Equity)	압도적 결제기술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구축한 결제기업	4.3%
3	JP Morgan (JPM US Equity)	글로벌 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월스트리트 대표 투자은행	4.3%
4	Goldman Sachs (GS US Equity)	초고액 자산가 및 기관향 비즈니스에 강점을 가진 투자은행	4.3%
5	CME Group (CME US Equity)	세계 최대 규모의 선물/옵션 파생상품 거래소 운영 기업	4.3%

※ 자료: 2025년 4월 4일 기준, 삼성자산운용

※ 월분배금은 분배금 자원 내에서 분배 예정입니다. 상기 전략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, 매월 분배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- ※ 합성총보수·비용 및 총보수는 기준가격에 따라 매일 일할 계산하여 반영되며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*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: 합성총보수 연 0.2783%, FY2024 기준 증권거래비용 0.1688% 발생, 위험등급: 2등급 (높은 위험)
 - * Kodex 미국배당다운존스: 총보수 연 0.0099% (운용 0.0029%, AP 0.001%, 신탁 0.003%, 사무 0.003%), 위험등급: 2등급 (높은 위험)
 - * Kodex 미국배당다운존스타겟커버드콜: 총보수 연 0.390% (운용 0.359%, AP 0.001%, 신탁 0.020%, 사무 0.010%), 위험등급: 1등급 (매우 높은 위험)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,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
-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,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,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,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,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료부터 입수하였을 경우,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, 보수,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-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.
-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되며,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-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
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